

유럽(영국, 프랑스) 대학도서관 방문기

- 2006학년도 직원 해외 전문연수 결과 보고 -

김 장 원 외
(행정지원팀)

< 목 차 >

- | | |
|----------------|----------------|
| I. 연수개요 | 5. 소르본도서관 |
| II. 방문지별 연수 내용 | III. 연수결과 |
| 1. 런던대학교 | 1. 평가 |
| 2. 옥스퍼드대학교 | 2. 제안 및 개선사항 |
| 3. 영국국립도서관 | IV. 연수 참가자 소감문 |
| 4. 에섹대학 | V. 수집자료 |

I. 연수개요

1. 연수근거

대학본부의 2006 해외 전문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심사로 선발

2. 연수기간

2006. 8. 28(월) ~ 9. 6(수)

3. 참가자

정보관리과 송준용, 정노옥, 최미순, 행정지원팀 김장원, 의학분관 김만섭, 국제대학원 권순덕

4. 방문기관 : 영국, 프랑스 5개 기관

가. University of London College Senate House Library : 런던대학교 중앙도서관

나. University of Oxford, Bodleian Library : 옥스퍼드대학교 중앙도서관

다. British Library : 영국국립도서관

라. ESSEC : 프랑스 Grande Ecole, MBA

마. Sorbonne Library : 파리1, 3, 4, 5, 7대학의 중앙도서관

5. 연수 목적

가. 유럽 선진 대학도서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현지 견학·조사·분석·비교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에 발전적으로 적용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도서관의 선진화에 기여함

나. 연구중심 대학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및 이용효율 제고방안 강구

다. 분관 및 전문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6. 세부 연수 주제

가. E-Resource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나. 분관 설치 운영사례 조사

다. 도서관 행정지원체계 조사

라. 국제간 학술지 상호대차 서비스 실태 조사

마. 학술지 이용방안 제고 및 보존서고 운영 실태 조사

바.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및 관리실태 조사

7. 연수 준비과정

가. 대외협력실의 도움을 받아 방문예정기관별로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음.

나. 개인별로 알고 싶은 내용과 투어희망 시설을 작성하여 종합 검토 후 기관별 질문지를 보냄

다. 방문기관의 규모, 위치, 역사, 현황 등 정보를 파악함

라. 그룹토의를 3회를 갖고 준비사항을 점검함.

마. 한국인 현지 유학생을 가이드로 섭외하여 교통, 숙박시설 등을 조사하고 예약함

바. 기념품, 우리도서관 안내책자, 요람 등을 준비

사. 시간을 지켜 방문기관에 도착, 예의를 갖추어 소개하고 안내자와 면담함

아. 면담은 미리 이메일로 보낸 질문지를 중심으로 1시간정도 인터뷰 함

자. 면담 후에는 미리 중점적으로 보고자 원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 투어를 함

차. 면담과 투어 중 양해를 얻어 기념촬영을 함

카. 대상기관 외에도 방문지의 여러 모습과 문화를 이해하여 필요한 경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 둠.

타. 유럽 선진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체험함

파.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도움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미완의 조사 자료를 E-Mail로 받아 보완함

하. 귀국보고서 작성, 대학본부에 공무수행 완료 보고함

II. 방문지별 연수 내용

1.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College), Senate House Library

<http://www.lon.ac.uk/> <http://www.ulrls.lon.ac.uk/> <http://www.ull.ac.uk/>

가. 방문 개요

- 1) 일시 : 2006. 8. 28. 10:00-12:00
- 2) 인터뷰 장소 : 세네트호스도서관 회의실
- 3) 인터뷰 인물
 - Paul McLaughlin(정리과장)
 - Christine Muller(봉사과장)
 - Ian Snowley(학원서비스과장)

나. 대학현황

1) 대학 연혁

런던대학은 중세 옥스퍼드(1167년)와 케임브리지(1209년) 이후 500년쯤 뒤에 세워진 영국의 세 번째 대학으로 1826년 벤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연합이 수도 런던에 설립한 대학이다.

영국의 대학은 대부분 공공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립학교에 가깝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학부생의 수업료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개혁을 목표로 한 디어링보고서에 따라 1998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을 채택해 모든 대학이 1년에 약 1000파운드 이상의 학비를 받고 있다. 엘리트 위주의 대학정책을 견지해 온 전통 때문에 1960년대까지 영국에서 대학교육 수혜자는 6%에 불과했다. 영국 정부는 이후 꾸준히 대학을 설립하고 1990년대 기술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최근 대학 진학률을 43%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학생수 증가와 정부지원금 축소 등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전공에 따라 연간 3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부과한다.



<런던대학교 Senate House Library>

2) 대학 개요

- 가) 설립형태 : 최초의 민간대학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국립대학으로 발전
- 나) 설립연도 : 1826년
- 다) 학부생수 : 11,480명
- 라) 대학원생 : 4,540명
- 마) 학생 대 교수비율 : 7.6대 1
- 바) 학비 : 약 3,000파운드(약 500만원)
- 사) 위치 : Russell Square Gardens 옆 British Museum 옆
- 아) 방문기관 : Senate House Library

다. 도서관 현황

1) 도서관 개요

1830년대 런던대학 최초의 정보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870년대부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기증이나 구입으로 200만 책을 모으게 되었다. 현재의 도서관은 1937년 건물을 신축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예술적인 설계로 열람실을 설계하였다. 도서관내에는 서고, 열람실 이외에 전시실, 회의실 등이 있다.

가) 개관시간

요일	봄, 여름학기 (2006.6.12 - 9. 23)	가을학기 (2006.9.25 - 12.16)	방학 중
월-목	09:00 - 18:00	09:00 - 21:00	09:00 - 18:00
금	09:00 - 18:00	09:00 - 18:30	09:00 - 18:00
토	09:30 - 17:30	09:30 - 17:30	09:30 - 17:30

나) 휴관일

- 매주 일요일
- 8월 Bank Holiday : 8월 26주 토요일 - 28주 월요일
- 크리스마스 / 신년초 : 12월 22주 - 2007년 1월 첫 주

다) 장서 및 이용 현황

구 분	현 황	구 분	현 황
인쇄본 장서	200만 책	목록건수	885,400건
구독 저널	5,295종	열람석수	578석
1801년 이전 장서	12만 책	등록자수	37,209명
필사본/기록물	1,000건	연간대출 책 수	약 412,000책
런던대 학위논문	약 17만 책	웹 접속건수	1200만 건

라) 대표 전화번호 및 이메일 : 020 7862 8500, Enquiries@shl.lon.ac.uk

마) 회원제 운영

* 회원권 발급을 위하여 현재 주소와 신원을 확인한다.

구성원	기부 협약자 및 구성원	대출이용료		참고봉사료	
		6개월	연간	6개월	연간
런던대학 구성원	현재의 개인회원 및 대학기부협약을 하지 않은 대학의 현재 개인회원 - 런던대학과 협력기관 구성원 - 학교 퇴직자 및 런던대학의 기타직원	£70.00	£95.00	£60.00	£80.00
	- 과거 3년 학위를 받지 못한 런던대학 대학원생		£45.00 (4책)		
	런던대학의 명예교수	무료			
비 구성원 (HEIs)	영국국적 학교직원, 박사, 연구과정 학생		£95.00		무료
	영국국적 외 직원, 연구나 박사과정 학생	£75.00	£135.00	£15.00	£30.00
	기타 범주의 학생	£75.00	£135.00	£65.00	£115.00
개인회원	개인연구자(다른 범주의 대부분)	£85.00	£155.00	£75.00	£135.00
	일일 입장권	£5.00(참고봉사만)			
	7일 입장권(7회 연속)	£25.00(참고봉사만)			
연구 회원	협동회원 - 4명의 개인회원	£500.00회원권 협의요망			
	그룹회원	협의요망			

* 연회비 : ①개인 £20.00 ②협력기관 £40.00 ③평생회원 £400.00 ④학생 £10.00

바) 안내 팸플렛

- 주제분류표 구성
- 최신 및 현재시사정보
- 학위논문 이용
- 런던대 이외 타도서관 이용안내
- 전자저널 이용방법
- Enquiry Services

사) 주제별 자료실 안내 자료

- 정치학, 음악, 지도, 법학, Victorian Studies, Periodicals, Theatre Studies, 참고자료실, 특수 장서실, 사회학 및 인류학자료실, Film and Media Studies, Art, 경제학, Latin America, 기록문서 및 필사본자료실, 역사·기술과학·의학자료실, 지리학, 인쇄도서 안내, 필사본 연구 및 Palaeotropical(구열대구)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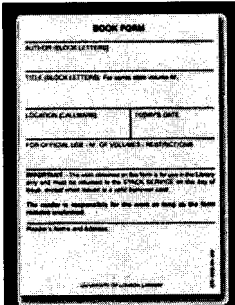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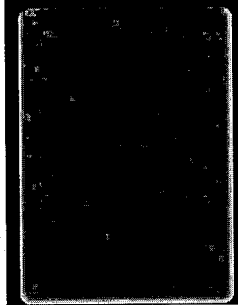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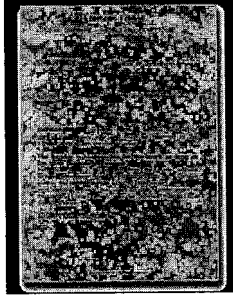


<런던대학도서관 회의실>



<주제별자료실 중 하나>

아) 서고 서비스 : 서고 장서는 폐가제로 운영한다.

단행본(노란색)	정기간행물(파란색)	학위논문(오렌지색)
		

* 책을 신청한 후 책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이다. E-Mail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4-48시간 내에 찾아가야 한다.

라. 방문기록

1) 면담내용

가) 캠퍼스 내 30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나) Senate House Library는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며 자료수집에도 중복수서를 피하도록 조정한다.

다) Senate House Library은 연구도서관 중심으로 하고 중소도서관은 학부제 중심으로 운영한다.

라) 직원은 직접고용(Paid Member)와 간접고용으로 구성된다.

마) 회원제 취득자에 대하여 심사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바) 영국에 납본도서관이 5개인데 그중 하나의 납본도서관이다.

사) 사회과학 주제 중심도서관이다.

아) 연구도서는 1Copy만 구입하고 학습도서관에 복본 5권을 확보한다.

자) 직원은 78명이며 3,500,000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차) 서비스 대상자는 45,000명이며 총 구성원은 59,000명이다.

카) 1일 입장료는 5파운드이며 1년 이용권은 119파운드이다.

타) 저작권 확인은 웹에서 인증을 받아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파) 자료의 디지털화는 저작권 문제가 따르며 기금확보에 따라 디지털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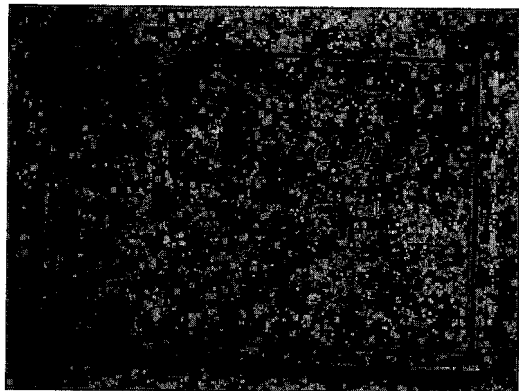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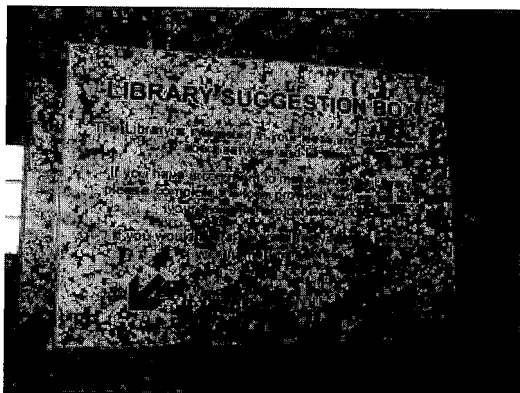
하) 기금을 많이 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제별 자료실 명칭을 부여하였다.

거) 분류표는 BLIC를 사용한다.

네) Senate House 도서관은 7층까지 사용하며 그중 3-5층은 1930년대 자료이다.

더) 전자저널과 Paper저널의 혼용구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동시구독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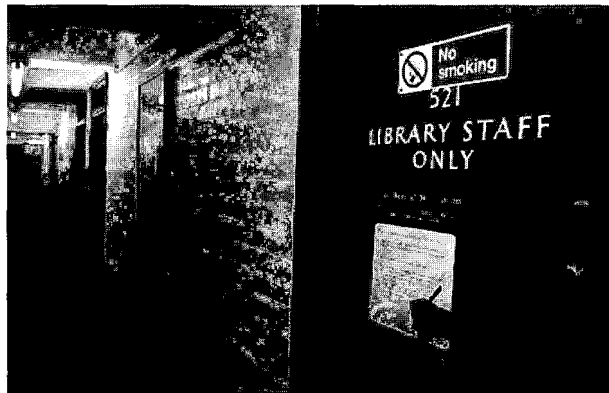
러) 도서관 직원 101명 중 사서 25명은 전문교수직 자격자이며 16명은 전문직, 60명은 보조원이다.



<건의사항 수렴>

2) 견학내용

- 가) 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한다(대출 소요 시간 : 20분). E-mail 대출신청 가능
- 나) 열람석이 중앙에 위치한 개가제 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열람석마다 LAN Port가 설치되어 있다.
- 다) 도서관 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 및 학자들의 이름을 딴 주제별자료실이 잘 설치되어 있다.
- 라) 개인 연구자를 위한 1평 정도의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마) 교수 연구실 형태의 사서 전용공간이 있다.
- 바) Inter-Library Loans
 - ①영국 책 또는 저널 아티클 : £7 ②영국 학위논문 : £12 ③미국 학위논문 : £22
 - ④기타 해외 학위논문 : £30



<사서 사무실>

○ 런던대학 주제전문 사서 명단(일부)

- 1) Anthropology Catherine Phillpotts - Academic Liaison Librarian - Head of Social Sciences Team cphillpotts@shl.lon.ac.uk 020 7862 8449
- 2) Archaeology Ross Woollard - Academic Liaison Librarian- Head of Humanities Team rwoollard@shl.lon.ac.uk 020 7862 8454
- 3) Archives & Manuscripts Christine Wise - Sub-Librarian - Special Collections cwise@shl.lon.ac.uk 020 7862 8471
- 4) Art Shereen Colvin - Academic Liaison Librarian - Humanities Team scolvin@shl.lon.ac.uk 020 7862 8435
- 5) Book Studies Mike Mulcay - Academic Liaison Librarian - Head of Print, Manuscript Studies & Special Collections Team mmulcay@shl.lon.ac.uk 020 7862 8463

2. 옥스퍼드대학교(Univ. of Oxford), Bodleian Library <http://www.bodley.ox.uk>

가. 방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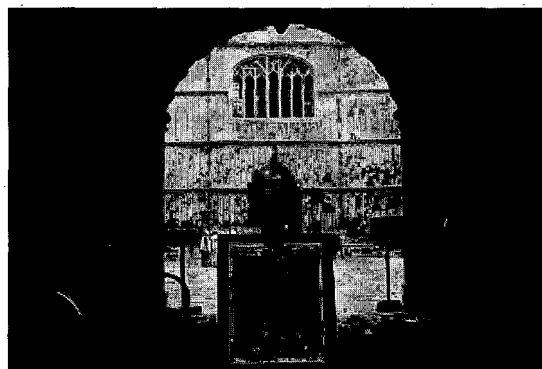
- 1) 일시 : 2006. 8. 29. 10:00-12:00
- 2) 인터뷰 장소 : 신보들리안도서관 회의실
- 3) 인터뷰 인물
 - Michael Heaney(Executive Secretary, Library Services)
 - Ronald Milne(Acting Director of Univ. Library Services & Bodley's Librarian)
- 4) 방문 내용 : 그룹 인터뷰, 지하서고 등 도서관 투어, 기념품 증정 등



<사진 7, 8, 신 보들리안도서관 인터뷰 및 기념사진>

나. 현황

- 1) 도서관 현황
 - 가) 현재 800만 장서, 각 도서관에 분산 소장.
 - 나) 분관 9개, 학과 및 연구소 도서관 80개 -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서비스를 함.
 - 다) 1930년대 뉴보들리안 도서관 건축, 도서관 2011년 마스터플랜 진행 중 - 20개 도서관 흡수할 예정
 - 라) 직원 관리, 일반 행정(예산집행, 도서관 관리), 각 도서관 업무 중 중복 부분 해결 등에 대하여는 2000년에 조직된 Oxford Library Services에서 통괄
 - 마) Management structure, E-resources 등에 주력하고 있음



<Oxford Bodleian Library 입구>



<이송장치를 따라 지하서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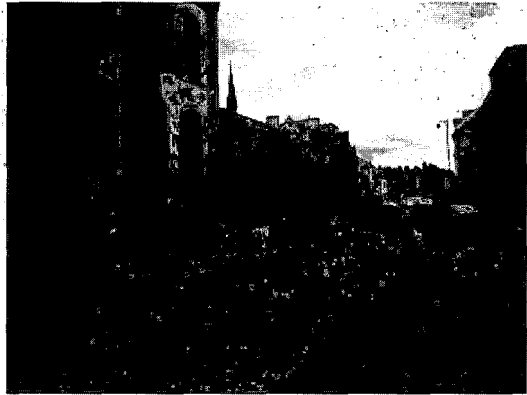
2) 도서관 통계

가) 장서 및 서비스(2004-2005)

사 항		내 용		비 고
장서 수		7,428,000	- 포함내용 석사논문-249,000 인큐내블러(초간본)-6,755 온라인목록 - 5,185,000	서울대 (2005) 2,584,647
지도		1,241,000		
마이크로 폼		989,000		
개가제서가에 있는 책수		992,000	전체 장서의 14%	
장서가 꽂 찬 서가 길이		190km (118 miles)		
'04-'05년 취득도서 서가 길이		3.2km (1.9 miles)		
'04-05년 취득장서	단행본/ 팜플렛	102,000	- 납본 - 68,000 - 구입 - 25,000 - 기증/교환 - 9,000	서울대 (2005) - 105,281 .구입 - 70,391 .수증/교환 - 34,890
	연속간행물	159,500	- 납본 - 98,000 - 구입 - 51,000 - 기증/교환 - 10,500	서울대 (2005) - 9,895 .구입 - 4,004 .수증/교환 - 5,891
2004-05 년 이용통계	서가이용 자료 수	310,500		
	Photocopying	3,750,000		
	Photography	306,500		
Reading room수		30		24
좌석 수		2,482		6,083



<지하서고>



<옥스포드대학의 시가지>

나) 예산 및 직원

- 예산 : 약 3000만 파운드, 이 중 2000만 파운드가 대학 외 정부, 펀드 등Oxford Library Services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도서관이 독립적이었으나 만들어진 이후에는 조직 통합으로 예산 집행을 같이 함
- 직원 : 700명(풀타임 600명, 기타 파트타임 등), 주제전문사서 150명(25%)
- 2004-05지출액: £10,750,000(급여 £7,890,000 자료구입 £1,881,000 보존관리 £119,500)

다) 보들리안 도서관 특징

- 납본도서관
- 관외대출 금지, 열람만 가능
- 영국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Bodleian)' 조직 운영(1925년~)

다. 질의답변사항

1) 보들리안 도서관과 분관과의 관계

가) 역할

보들리안 도서관	분관(9개)
· 연구 중심 도서관	· 연구지원서비스
· 자료 대출 안 됨	· 자료 대출

나) 분관도서관의 관장제도 유무 - 매니지먼트(주제별 조직), 거버넌스

다) 질문 & 답변

- 관장이 교수인지 아니면 사서인지? 학과교수가 관여(자료구입), 60년대 말까지는 교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도서관 운영은 사서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서가 하고 있음.
- 신분은? Senior Librarian(시니어 사서), 관장의 임기는? 없음

2) 보들리안도서관 '친구 활동'에 대해

가) 성격

- 개인조직,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직된 모임
- 기부금, 자원봉사 및 통한 자발적인 모임
-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님

나) 질문 & 답변

- 이 조직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의 역할 또는 혜택이 있는지?
- 도서관 행사 초대, 소식지 무료 서비스 등

3)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개방에 대해

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개방문제, 졸업생 개방 문제는?

- 60%가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연구를 하는 학생, 직원, 도서관 직원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들리안도서관 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이 유럽 전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음.

나) 일반지역주민들의 경우는?

- 시립,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공인된 연구자가 아닌 사람(일반인, 학부생)의 경우는 연회비 25파운드를 내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특성상 연구 자료이므로 대출은 안 된다.

4) 전자저널 이용에 대해

가) 전자저널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는가? 75만 파운드

나) 향후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전자저널 이용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인쇄저널 또한 찾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향후 우리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항

1) '도서관의 친구' 형태의 조직 운영

가) 영국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가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으로써 이 운영사업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도서관에서 활용 방안 모색

나)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금모금, 자원봉사, 홍보활동, 로비 및 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이 공식적인 예산 외에 더 나은 도서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시민사회로부터 추가로 모으기 위한 방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친구'의 도움으로 재정적인 안정과 추가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서고운영 방안

- 가) Conveyor belt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이동(지하 서고에서 각 자료실로)
 - 나) 구 보들리안 도서관과 신 보들리안 도서관 사이 지하에 800만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서고를 조성하였고 이 자료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다) 자료를 신청한 각 reading room으로 배달되며 열람이 끝난 자료는 다시 이 시스템으로 지하서고로 이송된다.
 - 라) 자료 수장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도서관도 본부와 도서관 사이의 아크로광장 지하에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존서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3) 고문헌 및 보존 방안
- 가) 유럽 최초의 도서관인 만큼 초간본 등 고문헌 관리 및 보존시설 및 보존비용에 대해 많은 방안과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 나)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서도 고문헌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예산이 산정되어야 하며 자료 구입비 외에 보존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과 보존 관리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라. 방문 후기

런던 외곽 약 60km에 위치하여 대학의 연합체들이 모인 옥스퍼드 대학, 1600년대의 장서와 중세 대학도시의 고품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곳, 옥스퍼드 보들레르도서관은 오래된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연구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Reading room의 운영 모습, 지하서고의 Conveyor 도서이송 시스템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특히, 고질적으로 공간 부족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도서관에서 본부 행정관과 도서관 사이의 아크로광장 지하에 서고를 조성하고 자료운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향후 20년 이상 공간문제에 부딪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British Library(영국국립도서관) <http://www.bl.uk>

가. 방문 개요

- 1) 일시 : 2006. 8. 29 14:00 - 17:00
- 2) 내용 : 사전 섭외한 한국인 사서의 안내, Tour 담당직원의 BL 브리핑, 관내 투어, 자료보존 담당자 미팅 후 자료보존 studio 견학
- 3) 안내자 : 강창오(한국인 사서), Philip Madden(Tour), Mark Barnard(자료보존)



<British Library와 파스칼 동상>

나. 현황 및 기능

BL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으로 영국의 대표 도서관, 도서관 및 정보지원 센터, 국가서지센터, 세계 최대의 문헌제공 센터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 장서 현황

- 가) 총 약 1억 5천만 권(BC300년 자료부터 현재의 신문자료까지)의 장서 보유
- 나) 필사본 : 31만 건
- 다) 특허자료 : 4,950만 건
- 라) 지도 : 4백만 건
- 마) 잡지 : 26만 건
- 바) 한국학 관련자료 : 30만 건

2) 기능

- 가) 영국국가도서관의 역할
- 나) 영국 저작권 간행물 등록업무
- 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을 납본 받는 납본도서관
- 라) 영국국가서지의 발행자
- 마) 열람대출을 수행하는 중앙기구
- 바) 서지 및 정보봉사의 컴퓨터 개발운영자
- 사) 도서관학 및 정보학 연구 지원기구
- 아) 전 세계의 도서에 대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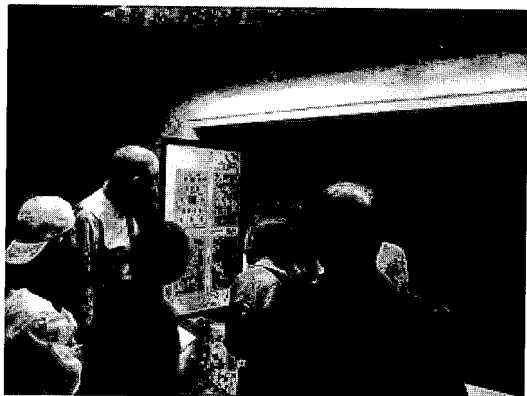
다. 특징

- 1) 총 장서 1억5천만 권으로 매년 3백만 권씩 증가(2006. 9월 현재)
- 2) 서가 길이 총 625km로 매년 12km씩 증가.
- 3) 한 사람이 매일 5권씩 자료를 볼 경우 BL의 모든 장서를 열람하는데 8만년 소요
- 4) 8백만 건의 우표 보유(영국최초의 우표 포함)

- 5) 필사본, 지도, 신문, 잡지, 그림, 악보, 특허 자료 등 소장
- 6) 열람자용 좌석 수 : 1,200명 동시 사용가능
- 7) 1일 장서이용자 수 : 16,000 명
- 8) 직원 수 : 2,000명 (3개관)
- 9) Reading room 방문자 수 : 연간 40만 명
- 10) 연간 온라인 목록 이용자 수 : 6백만 명
- 11) Our mission : Helping people advance knowledge to enrich lives

라. 주요 보물 소장품

- 1) Magna Carta(대헌장)
- 2) Lindisfarne Gospels
- 3) Leonardo da Vinci의 수고
- 4) 1788년 3월 18일자 The Times 초판
- 5) Beatles의 육필악보 원본
- 6) Nelson Mandela의 실제 연설녹음자료
- 7) 最古의 인쇄물인 "The Diamond Sutra"(868AD)를 Sir John Ritblat Gallery 소장



<Philatelic Collections>



<회원 등록실>

마. 도서관 개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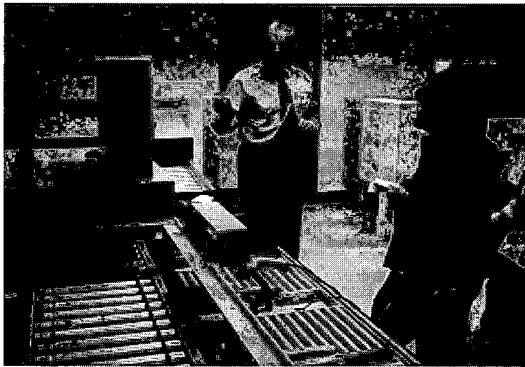
- 1) 월, 수, 목, 금 : 09:30~18:00
- 2) 화 : 09:30~20:00
- 3) 토 : 09:30~17:00
- 4) 일, 국경일 : 11:00~17:00

바. PayGo Service

도서관의 모든 열람실 및 로비, 카페, 휴게실, 회의실, 그리고 WiFi(Wireless Fidelity) work zone 에서 무선 랜을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 PDA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ayGo 카드를 구입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ID, password를 부여해 준다. BL 웹사이트와 목록 검색은 무료이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You can 'pay as you go' with our British Library Pay Go service

30분	1시간	1일	1주일	1개월	6개월
£3.00	£4.50	£9.99.00	£24.99.00	£35.00	£96.00



<자료 이송시설>



<‘인류와 책’ 형상 벤치>

사. BDLSC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Boston Spa, Yorkshire)

영국국립도서관 산하기관으로 1916년부터 런던에서 운영되었던 NCL과 1961년이래로 보스톤 스파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NLIST가 1973년 BLLD로 통합되고 1985년 그 명칭을 BLDSC로 개칭하였다. 과학기술,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문과학 및 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자료를 소장하고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문헌제공기관으로 영국의 원자력 분야 보고서 및 기타 문헌의 보존 도서관 역할과 대규모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관이며 또한 모든 도서관이나 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에게 빠르고 포괄적인 문헌 배달과 상호대차 서비스, 최신정보주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런던의 중앙관과 무려 334.6km나 떨어져 있음에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여러 하부조직 중에서 가장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정보(약 26만종의 잡지, 300만 권 이상의 도서, 50만 건의 회의자료, 약 500만 건의 기술보고서, 약 15만 건의 영국박사학위논문 등)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연구자 2만 명에게 연간 약 400만 건의 상호대차 및 문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LDSC의 소장 자료는 대부분 상호대차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저널기사나 회

의자료 등은 영국저작권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복사할 수 있다.

1) DDS 서비스 종류

- 가) 영국내 대차 복사 서비스 (UK loan and photocopy services)
- 나) 국제 복사 서비스 (International Photocopy Services)
- 다) 국제 대차 서비스 (International Loan Services)
- 라) 긴급서비스 (Urgent Action Services)
- 마) LEXICON-Easy Order Service

2) DDS 신청방법

- 가) British Library Direct
- 나) Images Online
- 다) Reproductions
- 라) ARTWEB, Inside web, Lexicon

3) DDS 이용요금

- 가) 복사 서비스

배달 방법	소요시간	기본요금	추가요금
SED or Ariel	2-5일	£ 7.95	저작권료 : 저널마다 상이, 9천원~18만원
우편	5-10일	£ 8.95	
팩스	2-5일	£ 9.45	
24시간 SED	1-2일	£ 16.00	
2시간 SED	2시간~1일	£ 25.00	

나) 배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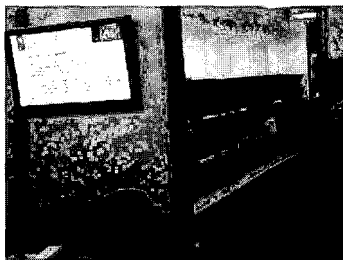
배달 방법	소요시간	기본요금	추가요금
일 반	5-10일	£ 15.50	* 반납우편료 별도 * 대출자료 분실시 £114 비용 부과
특급(2시간 이내 우편으로 발송)	1-3일	£ 32.50	
특급(24시간 이내 우편 발송)	2-5일	£ 24.00	
대출기간 연장		£ 3.00	

다) 영국학위논문 서비스

배달 방법	소요시간	기본요금	추가요금
Microform자료대출	1-2주	£ 15.50	* 반납우편료 별도 * 대출자료 분실시 £114.00 비용 부과됨
Softbound 구매	3-6주	£65.00	
Microform 구매	2-4주	£30.00	
대출기간 연장		£ 3.00	

라) 특허자료 복사서비스 ; 100p.까지 £28.00(그이상은 1page 당 £1.00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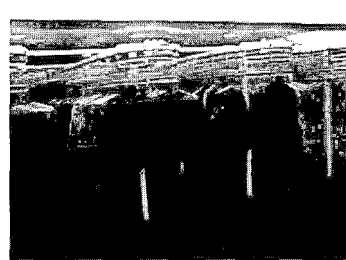
· 참고 : <http://www.bl.uk/services/document/dsc.html>



<가방보관소>



<소지품 분류대>



<외투 보관소>

아. 아쉬운 점

짧은 연수 기간에 맞춰 5개 기관들과 사전에 방문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BL에서는 서고 관람에만 반나절이 걸린다고 하는 Piazza 광장 지하의 초대형 지하 서고(장서 1,200만권 보존)와 BLDSC 방문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영국 북부 요크셔 지방에 위치한 BDL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Boston Spa, Yorkshire)센터는 직접 방문 대신에 상호대차 담당자와의 질문지 교류로 대신하기로 했으나 ILL관련정보는 BLDSC 영업상의 비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며 한국 BLDSC 대행사와 상호교류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 제안 사항

1) Reading room 운영

도서관 자료를 11개 주제별로 분산하여 열람공간과 함께 자료를 배치 운영함. 각 Reading room에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Reader's pass 등록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함. 서울대학교도서관도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신문 등 형태별로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 대신에 각 주제별로 자료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 관련 자료는 한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각 주제에 맞는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이용자와 직접 질의응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제별 자료열람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Humanities reading rooms : 역사, 문학, 예술, 문화 관련 자료 소장

나) Manuscripts, rare books & music and maps

다) Asian & African studies reading room

라) Social sciences reading room

마) Science reading room

바) Rare books & music reading room 등

2) Reader's pass 발급

Reader's pass 발급을 신규 신청하거나 갱신을 원하는 경우 Reader reg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면담을 거친 후 Reader's card 발급이 결정되며 신분이 확실해야 발급해 준다.(signature and home address - passport, driver's licence, bank, credit or identity card, together with a bank statement or utility bill). 대학 4학년이상의 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그룹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인터뷰 후 Reader's card를 발급해 준다. Reader's pass의 발급과 관련한 사항이다.

가) 150만권 이상의 자료 이용 가능

나) 11개의 Reading room 이용 가능

다) 모든 분야의 연구자, 기업가, 발명가 등의 연구 지원 가능

라) 18세 이하인 경우는 Reader's card 발급시 부모나 선생님의 보증이 필요

마) Reader's pass 분실이나 교체 발급시 비용청구 : £10.00 charge

바) 임시 Reader's pass 발급 : £5.00 charges(정식카드 이전에 발급)

연간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고 자료를 이용 및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게 된다. 우리 도서관도 회원제 서비스 시행에 앞서 도서관 출입, 자료 대출, 상호대차, e-resources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회원제 요금기준과 서비스 제공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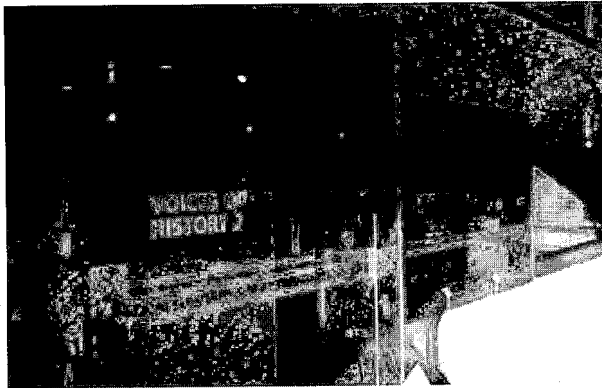
3) 도서관 출입자용 비닐백 사용

도서관 출입시 가방이나 외투는 Cloak room에 맡겨야 하며, 개인 소지품은 겉에서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clear bags (흰투명백)를 비치하여 휴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관 이용 후 바깥으로 나갈 때는 담당직원이 clear bags 내부를 조사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 도서관도 이용자들이 소지품 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는 개인 소지품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 백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Library Shop 운영

도서관내에 Library Shop을 운영하여 Books, Audio CD와 특이한 선물용품이나 수공예품 전시하여 판매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 도서관답게 전시 판

매하고 있는 상품들도 매우 다양하였다.



<사진22, 도서관 기념품 Shop>

The British Library Shop is one of London's finest specialist bookshops - the first in the country to focus on all aspects of the history and making of books.
We are open seven days a week to everyone.
You can also order from our Online Shop.

그 외 exhibition galleries, bookshop, restaurant and café. 등 누구든지 도서관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이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딱딱한 장소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편안하게 도서관을 방문하여 여유롭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도서관 로비 창가 쪽에 책 모양의 의자와 지구본이 굵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Bronze Bench 형상물이 있었는데, 책은 지식(knowledge)을 상징하고 지구본은 인류(mankind)를 상징한다고 했다. 즉 오늘의 우리가 존

재하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간접 메시지, 지식과 인류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도서관이 인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하며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4. ESSEC대학(École Supérieure des Sciences Économiques et Commerci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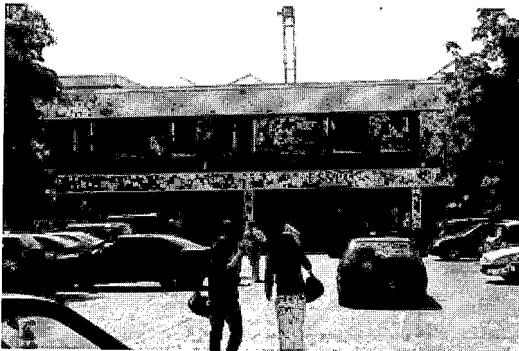
가. 방문 개요

- 1) 일시 : 2006. 8. 31 15:00 - 17:30
- 2) 내용 : 사전 섭외한 국제협력과장의 PPT 소개 Tour, 도서관 Tour
- 3) 안내자 :
 - Michele Pekar Lempereur(MBA 발전 및 국제협력과장)
 - Corinne Peiffert(International Programs Coordinator)
 - Librarian 1

나. 일반현황

- 1) 설립년도
1907 프랑스 Grande Ecole

- 1999년 grande ecole program에서 MBA로 발전
- 2) One Campus - Three Locations
- 가) Paris-Cergy Campus
 - 나) Paris-La Defense Campus
 - 다) ESSEC Asian Center in Singapore
- 3) ESSEC Business School's MBA Division
- 가) ESSEC MBA(주요 프로그램)
 - 나) MBA in International Luxury Brand Management
 - 다) MBA in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
 - 라) ESSEC & Mannheim Executive MBA



<에섹대학>



<대외협력팀의 대학 소개>

4) 교수현황

가) 정교수 약 108명, 이중 30%가 외국인 교수

* 서울대 외국인 교수 : 2.7%(47명)

나) 초빙교수 및 산학협동교수가 약 200명

5) 학생 현황

가) 재학생 : 25개의 학위 과정에 약 3,6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의 회사 중역급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주요 프로그램인 ESSEC MBA엔 약 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나) 외국인학생 현황 : ESSEC MBA 등록생중 약 20%(약 400명, 50여 개국)가 외국인 학생이며, 1년 기준 방문 교환 학생수는 약 200명

* 서울대 외국인 학생 - 2.7%, 807명(2006.1학기 기준)

* 서울대 교환학생 - 211명(2006년 기준)

다) 졸업생 배출 현황 : 1년당 약 500명

6) Curriculum

- 가) 24 business courses(1 course=30 contact hours), 7 core courses
13 elective business courses, 2 English-language courses
2 other foreign language courses
- 나) 18months of professional experience - by the time of graduation
- 다) 6months of int'l experience - Int'lernship, Humanitarian Mission, Study Abroad

7) Academic Year at ESSEC

- 가) 9월(외국인 학생을 위한 집중 불어 코스)
- 나) Trimester 1(10월 ~ 12월)
- 다) Trimester 2(1월 ~ 3월)
- 라) Trimester 3(4월 ~ 6월)
- 마) 여름학기(6월에서 7월 사이 : 3주)



<에섹대 도서관 앞>



<담당 사서의 안내>

다. 질의답변 및 견학사항

1) 영어로 개설되는 과목 수 현황

학기당(1 term) 200여개의 고급 경영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중 30% 강좌가 영어로 개설되고 있다. 앞으로는 50%로 늘릴 계획임. MBA 전 과정을 영어로 수강 가능하다고 함. * 서울대 총 개설 강좌수 4,716개 이중 영어로 개설된 강좌 수는 5.4%인 225개 임.(2006.1학기 기준, 대학원논문연구 제외)

2)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정 현황

- 가) 29개국 75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음
 - Asia-Pacific(21개 대학)

- The Americas(30개 대학)
- Africa & Middle East(3개 대학)
- Europe(21개 대학)

나) 교환학생 수 : 1년 기준 약 200명

다) 공동학위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대학 수 : 6개 대학

- Seoul National University(MA/MBA)
- Peking University(MBA)
- Mannheim University(Diplom Kaufmann)
- Nanyang Business School - Singapore(MBA)
- EGADE-Tec de Monterrey(MBA)
- IIM Ahmedabad(MBA)

3) 단기프로그램(여름, 겨울)을 운영하고 있는가? 정규학과와 다른 점이 있다면?

- 정규 학기 프로그램과 차이를 둔 여름 프로그램(3주 집중 프로그램)을 6~7월 오픈하고 있음. "The Global Manager in Europe" 이라고 표제를 단 이 여름 프로그램은 유럽에서의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 상호 문화 관계, 유럽에서의 경영 실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MBA 학생들을 위해 마련됨.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문화행사(Cultural Understanding Program) 가 있다면?(ex, Cultural Tour, World Food Festival, 각종 파티, etc)

- 9월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랑스어 집중 코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여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학생회 MELT(Multicultural ESSECs Linked Together)에서는 캠퍼스 내의 상호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외국인학생들에게 "buddy system"을 제시하기도 함.

5)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가?

- 프랑스 정부(EGIDE)에서 제공하는 Eiffel 장학금과 에섹대학 자체에서 주는 우수학생 장학금이 있다. 대부분의 많은 Asian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음.

6)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나 인턴의 기회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가?

- 에섹 비즈니스 스쿨에는 기업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부서가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분야의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약 8,000건의 인턴쉽 제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내외 약 270여개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On-Campus Job Fair : 매년 2월 실시되며 15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

· International Recruitment Day : 2004년 4월부터 실시 됐으며 각종 해외 인턴십과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 Investment Banking Seminar : 지난 5년 동안 여러 큰 규모의 국제 은행들이 캠퍼스를

방문

- 7)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있다면, 수용가능 학생수는?
 - 내외국인 모든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임대주택이 있으며, 예석의 학생들에게 약 900개의 방을 임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Off-campus housing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을 동반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숙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 8) 귀 대학에서 직원 영어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경제적 지원이 있는가?
 - 인사부의 중요한 정책사항이며 직원들의 수준별 영어교육은 의무사항임.
- 9) 외국인 학생들만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는가? 직원들의 영어 사용 능력은?
 - ESSEC Business School 과 ESSEC MBA program에서 2개의 부서를 두고 있음. International Student Office(해외 학생 업무 담당 부서)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과 체류하는 동안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ESSEC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간에 따라 2~5명의 영어를 구사하는 스태프가 상주한다. 또 다른 하나는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국제 교류업무 부서)로, 해외 유학 프로그램, 해외 파트너망 관리, ESSEC MBA 프로그램의 교환 학생과 복수학위 학생 관리를 맡는다. 부서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6명의 직원이 있다.

라. 종합의견 및 제안

- 1)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로 된 정보 제공 강화
 - 가) Web-site 및 각종 게시판
 - 나) 수강신청 사이트 및 포탈사이트(학사행정)
 - (서울대의 한글 수강신청 사이트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움 호소)
 - 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공통양식 한글 및 영문 동시 표기 필요
- 2) 영어로 개설되는 강좌수 증대
 - 가) 교수의 외국어 능력 필요(외국어로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정도의 능력)
 - 나) 외국인 교수 채용의 증대
 - 외국인 학생들의 큰 어려움 중 영어로 개설되는 강좌수가 적어 교과목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을 때 외국인 학생은 점차 늘어날 것이며 나아가 좀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거라 생각된다.
- 3) 외국인 학생 담당 부서와 국제교류 관련 담당부서 기능 강화
 - 좀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업무부서의 세분과 인원보충 필요.
- 4) 대학홍보활동 강화
 - 교내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의 서울대 홍보 활동을 모색, 강화 필요함.
- 5) 교직원의 외국어 능력

-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대학 직원들의 국제적 매너와 외국어 능력이다. 에섹대학의 경우 직원 채용 시 가장 우선시 평가되는 부분이 외국어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에도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의 꾸준한 관리로 인하여 대부분의 staff들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에섹대학의 모든 직원들은 일정 영어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각 개인별 영어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수업량은 다르다고 한다. 영어 강좌는 에섹대학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서울대학은 직원들의 영어 교육이 의무적이기 보단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언어교육원에서 일부 직원을 위한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좀 더 직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외국어 관련 강좌들을 개설하는 등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 보다는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교육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소르본도서관(Bibliothèque de la Sorbonne)

가. 방문 개요

- 1) 일시 : 2006. 9. 1 14:00 - 16:00
- 2) 내용 : 질의 답변 및 도서관 Tour
- 3) 안내자 : Dominique Filippi(서지전문 담당 사서)

나. 프랑스의 고등교육 개요

1966년 프랑스는 전국 대학생의 30%에 해당하는 재학생을 가진 파리대학교를 해체하고 파리의 대학을 파리 제1대학에서부터 제13대학으로 재편하는 '에드가 포르 법안'에 따라 1970년대 초까지 전국 23개 대학의 해체·재편작업을 실행함으로써 프랑스의 대학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신제 국립종합대학교로 재출발하였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소르본대학은 없고 파리의 구역별로 평준화된 파리1대학 ~ 파리13대학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Université), 그랑제꼴(Grandes Ecoles), 과학기술계대학(Institut Universitaire), 단과대학(Ecol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대학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라고 부르는 엄격한 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하여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대학은 10월1일부터 시작하며 학년말고사를 합격하여 2학년이나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은 20%에 불과하다. 큰 학교라는 뜻의 그랑제꼴(Grandes Ecole)은 프랑스의 독특한 고등교육제도로 전국에 150개교 정도가 있으며,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영재들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한 후 지도자로 배출한다.

다. 견학 내용

소르본도서관은 파리1, 3, 4, 5, 7대학의 중앙도서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담당사서의 허락을 얻어 도서관을 투어하고 간단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만족하여야 했다.

1) 소르본도서관 개요

가) 명칭 : Bibliothèque de la Sorbonne

※ 프랑스에서는 도서관을 Bibliothèque, 서점을 Library라 한다.

나) 위치 : 13 rue de la Sorbonne, 75257 Paris

다) 형태 : Academic Library

라) 현 도서관 건축 : 1897년

마) web-site : <http://www.sorbonne.fr>

바) 소르본도서관 역사

- 1257년 Robert de Sorbon 신부 소르본대학(College de Sorbonne) 설립
- 1290년 Sorbonne 도서관 개관, 장서 1,017책
- 1770년 파리대학의 소르본도서관으로 출범, 신축 기공
- 1791년 프랑스혁명 국민의회 대학 귀족주의 비판과 함께 소르본대학 폐교
- 1795년 필사본 2000책 국립프랑스도서관으로 이관
- 1897년 신축 도서관 완공
- 1970년대 초 프랑스 대학개혁에 따라 파리1,3,4,5,7대학의 중앙도서관이 됨.



<소르본도서관 입구>



<소르본도서관 사서와의 면담>

2) 일반현황

가) 개관시간

- 월요일~수요일, 금요일 : 09:00~19:00(7~9월은 18:00까지)
- 목요일 : 11:00~19:00(7~9월은 18:00까지)

· 토요일 : 09:00~18:00

나) 장서 : 290만 책

· 1800년 이전 발간도서 10만 책

· 1800~1900년 발간도서 30만 책

· 1900년 이후 발간도서 250만 책

다) 이용대상 학생 : 약87,000명

라) 관할 분관 : 30개

마) 구독 학술지 : 4,700종(총 보유 학술지 18,000종)

바) 마이크로필름 : 70,000점

사) 연간 대출 도서 : 50,000책

아) 연간 열람 도서 : 300,000책

3) 특기사항

소르본도서관은 파리 중심의 라틴구역에 파리 1대학인 University Paris I - Pantheon-Sorbonne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5개의 파리 국립대학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우리와 사전 접촉하였던 Dominique Filippi를 소르본도서관에서 만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 직원채용 : 소르본도서관의 사서는 공무원으로 도서관학과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시험을 거쳐 채용한다.

나) 분관운영 : 소르본도서관은 국립대학인 파리1,3,4,5,7대학의 중앙도서관으로서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30여개 분관의 중앙관 역할을 담당

다) 주요장서 : 인문학, 법학, 철학, 경제학, 예술학

라) 상호이용 :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르본도서관과 파리 1,3,4,5,7대학도서관은 Interlibrary로써 상호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 자료실은 연속간행물실을 제외하고 폐가제로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자료실 입구에서 대출(관내, 관외 겸용)전표를 받고 들어가 자료를 신청하면 서고직원이 찾아내 준다.

바) 건물 보수, 리모델링은 법으로 규제되어 임의로 증축이나 개축할 수 없어 업무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사) 도서관의 업무 전반을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에도 100년을 넘게 사용하여 온 카드 목록함과 고색이 찬연한 열람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대 학자들의 초상화와 천장화는 그 안에서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과 함께 깊은 인상을 주었다.

III. 연수 결과

1. 평가

- 가.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럽 선진 두 나라의 대학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이용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전통 문화를 승계하는 전문화되고 조직적인 도서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 나. 각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나 정보검색 시설은 우리 도서관 보다 훨씬 부족해 보였으며 구식이었다. 그러나 각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중후하고 정숙한 분위기는 학습과 연구 활동에 적합한 상태를 제공하고 있었다.
- 다.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유럽 선진국의 대학과 대학도서관을 견학하면서 수많은 문명의 흔적과 발전상을 같이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상이 이루어 온 문화유적을 얼마나 잘 지키고 가꾸어 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자연과 과학을 지혜롭게 조화시킴으로써 강대국을 이루었던 저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익숙한 질서 의식, 문화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었다.
- 라.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로 붐비던 이번 연수 여행지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그들로부터 나오는 많은 문화의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저들마다 나름대로 간직해야할 인류 적 유산과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깨달음이 무척 컸다.
- 마. 연수팀은 여행 출발 전에 사전 준비를 비교적 많이 함으로써 방문기관 탐방 등 연수 전반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팀 구성원이 각자 교통, 기록관리, 숙박, 자금관리, 시간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연수가 가능하였다.
- 바. 연수 팀의 각 구성원이 도서관 내 근무환경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른 것이 연수 과정과 결과에 좋은 방향으로 상호 보완하여 나타났다.
- 사. 연수팀 구성원의 영어 구사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기관 방문 시에는 유학생 등 현지 가이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있었다면 더욱 유익한 연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결국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개인적으로 크나큰 장점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2. 제언 및 개선사항

가. 시설 및 설비의 보존

우리는 새것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인식하여 오래된 장비나 시설을 쉽게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자료열람 중심 환경으로의 자료실 운영

방문한 대학도서관의 대부분은 열람석을 가운데로 두고 바깥 창 쪽으로 자료를 배치하여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많은 경우 일반열람실과 자료실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 도서관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도서관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로 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 자료 보존을 위한 조치

방문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고문헌 등 자료의 보존과 손상 자료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Preservation 전문 인력을 7~8명씩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중한 고문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파손도서에 대하여 수리제본하기 바쁜 것이 현실이다.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자료 복원에 대한 전문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실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지품 등 검사를 통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료 이용을 통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도서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써 독서실화하고 있는 우리 열람실과 비추어 볼 때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일반인 연구자의 출입 유료화

일반인이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 회원등록을 통하여 이용료를 받으며 ID를 발급받지 않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음.

마. 연구중심 도서관으로 개편

대부분 대학의 중앙도서관은 연구중심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며 단과대학 도서관 등 분관은 학부중심도서관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도서관도 대학원생 중심관과 학부생중심관으로 이원화하여 자료수집과 보존, 열람실 운영 등에 있어서 효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바. 시설의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이용자 의식

대부분의 방문대학 학생들은 시설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이용 매너가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서고를 폐가제로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자료 이용의 불편함에도 비교적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개가제 운영이 학생들에게 자료 이용과 검색에 많은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한편 자료 분실과 손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 도서관예산 확보를 위한 기부금 모금의 양성화

자료 수집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의 재원 확보는 다다익선이라 하겠다. 도서관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펀드매니저 확보 등을 통하여 외부의 재력가나 시민에 대한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직원 영어능력 제고 필요

많은 유학생이 본교를 찾아오고 도서관을 찾는 외국 방문객도 1년에 수백 명이 되는 글로벌 교육 환경이 현실이 되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우리 연수팀원들이 깨달은 절실한 점 중의 하나는 각자가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이 좀더 좋았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일상 업무

에 바쁘겠지만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회화의 습득을 위하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고 대학에서 적절한 지원이 따라 준다면 대학의 경쟁력도 크게 개선 될 것이다.

끝으로 전문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의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각자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신 대학 및 도서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V. 연수자 소감문

전문연수팀 공문을 보고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에 윗분께 보고하고 팀장으로 연수팀을 짤 때는 직원 중 기존 해외연수자 명단을 입수하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그동안 해외에 다녀오지 않았거나 다녀왔더라도 오래되어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팀원을 구성하였다.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지원팀이 많아 경쟁률도 있고, 영어인터뷰도 있어서 통과될까 의문스러웠지만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도 있고 하여 어렵게 선정되었다. 우리 팀에게 기회를 주신 총무과 담당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본부의 조정과정에서 권순덕선생이 우리 팀에 합류하여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인원이 많아 제대로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동료간의 트러블이나 있지 않을까? 부부사이도 장기간여행을 하면 갈등이 생기는 법이거늘,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팀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섰다.

연수팀이 몇 차례 모여 일정을 조정하고 방문지를 결정하였는데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개별적으로 부여한 임무를 팀원들이 잘 수행하여 원만하게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문제는 서유럽이 물가가 비싸 경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절약한 탓에 점심은 많은 경우 인스턴트로 때웠다. 어떤 날은 아침을 먹고 8시간 만에 식사를 하는 강행군을 하기도 하였는데 방문지가 많다보니 트렁크 끌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는 것에 체력이 소진되기도 하였다.

방문기관에 다닐 때마다 왜? 우리도서관은 이런 환경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문제는 경제력수준과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있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대학도서관은 일반인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대학의 중심도서관은 연구도서관 역할을 하고, 단위도서관에서 학부생 전담 서비스를 하며, 사서들은 개인사무실이 있어 전문적으로써의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고, 도서관은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공부방이 아닌 자료 중심의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옛 물건을 소중히 아끼고 시설개선은 최소한에 그치고, 오

래된 물건을 현재까지 사용하며 규모는 한눈에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웅장하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되고,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게 느껴졌다.

우리도서관도 외형상의 발전보다는 내실을 기울이고, 이용자가 자료를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고, 서비스는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진정 도서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을 편리성만 강조하여 수행하지만 자료의 보존성도 고려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독서실화 하는 열람실, 24시간 개방 열람실, 타고생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이 도서관서비스의 주목적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탐색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소프트웨어적인 변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느껴졌다.

8박 10일 동안 한 가족처럼 보낸 팀원들이 너무 고맙다. 연수기간동안 날씨도 좋았고 작은 사고도 하나 없었으며 아픈 사람이나 낙오도 없었다. 경비를 절약한 나머지 뒤풀이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 팀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송준용>

어떤 기회로든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유럽, 이번 학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중 서유럽 연수팀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막연하게 동경해오던 곳에 대한 설렘, 외국여행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 전문연수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장도에 올랐다.

방문국(영국, 프랑스)의 대학이나 도서관, 먼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시설의 규모 장서수 등의 다양함과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가는 곳마다 옛것은 옛것 그대로 또 어떤 부분에는 첨단과학을 접목시켜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어 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지키고 보존해가는 문화 선진국의 면모를 볼 수 있어 부러움을 느꼈다.

세계속의 선진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잊지 못할 추억과 좋은 체험의 기회를 주신 대학당국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연수를 위하여 사전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애쓰신 팀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동료애를 발휘해준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김만섭>

맥도널드 햄버거는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사업장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맥도널드가 없는 곳이 거의 없으며 각 나라의 환율을 가늠할 때 맥도널드 1개 값이 그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성공적인 맥도널드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입맛에도 맞는 훌륭한 맛과 함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된다.

현재 국내의 도서관 시스템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선진외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도서관 시스템이 자동화된 이후에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시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의 도서관 시스템을 경험한 교수들의 경우에 국내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외국의 도서관에서 받아왔던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외국의 도서관시스템 중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서비스 시스템이 많이 있음으로 그들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서구 시스템의 운영과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한다면,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해외전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견학하고, 담당사서와 면담을 통하여 경험을 얻고, 도서관에 처한 문제에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레르 도서관의 모습은 오래된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모습, 연구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Reading room의 운영 모습, 지하서고의 conveyor belt 시스템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마저 들었다.

특히 고질적으로 공간 부족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도서관에서 향후 본부와 도서관 사이에 있는 아크로광장의 지하를 서고로 조성하여 자료를 수장하고 자료운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향후 20년 이상 공간문제에 부딪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연수기간에 비해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보자는 취지로 빡빡한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기간 내내 입술이 터지고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겼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연수 마지막 날은 왜 그리 아쉬웠는지 밤새 술과 이야기로 꽃을 피울 정도로 이번 연수는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마칠 수 있었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와 선진시스템의 파악은 향후 우리도서관에 적용하여 이용자의 기대와 만족에 부응하는 최선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자부한다. <최미순>

우선 도서관 팀과 함께 간 관계로 유럽 대학의 도서관을 두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한국의 현대적인 도서관과는 달리 유럽 대학의 도서관은 예전의 건물을 보수 유지해온 터라 예전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안내인의 자부심 가득한 얼굴이 새삼 떠오른다. 옛 것을 소중히 여겨 복원하고 유지하는 자세를 우리나라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곳곳의 여러 인종이 함께 살고 있어 그 나라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보면 그리 쉽게 떠오르진 않는다. 서로의 다른 면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다.

앞으로도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잊지 못할 좋은 추억과 경험을 하길 바라며 개

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순덕>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서울대학교 전문연수팀의 일원으로 선정되고 나니, 느긋했던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태어나 한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 땅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전문연수팀으로서의 소기의 방문 목적을 달성하면서 어떻게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선정된 기쁨도 잠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왔다.

방문 기관 선정, 업무 담당자 contact, 인터뷰할 내용, 숙박 문제, 항공권, 환전 등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다행히 우리 연수팀은 도서관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기에 틈틈이 근무시간을 쪼개어 미팅을 가졌고, 각 연수자 별로 방문 기관을 하나씩 분담하여 세부 사항들을 준비하였다. 연수는 역시 팀워크가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았는데, 우리 팀은 그런 면에서는 최고였다.

8월 28일 인천공항에서 NLM 항공기 편으로 런던으로 출발하면서 과연 열흘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불안하고 착잡한 마음보다는 낫선 나라를 찾아가는 여행의 설렘과 들뜬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다. 역시 혼자 떠나는 연수보다는 여러 동료와 함께 하는 연수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았다.

8박 10일간 우리가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명 도서관들은 역시나 그 유명세에 맞게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고풍스런 건물, 기념 석상들,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오래된 목록함, 손때 묻은 열람석과 곳곳에 비치된 스탠드, 유리창에 장식된 현란한 스테인드글라스,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남은 낡은 문지방과 서장들,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도서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5개 기관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다 보니, 힘들게 찾아간 도서관들을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Survey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연수가 끝나갈 무렵에는 다음 연수팀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팀을 선정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였다. 역시 5개 기관 방문은 무리였었던 것 같았고 영어 공부의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방문 기관에서 우리 팀을 위해 최대한 친절히 설명하는 등 배려는 해주었지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여 얘기를 듣다보니, 곧 머리가 멍해지고 지끈거려졌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유럽 도서관 사서들의 직업에 대한 애착심과 전문가로서의 철저한 프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으며, 사서로서의 직업의식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럽의 도서관들은 인쇄 자료를 아끼고 보존하는 기능과 함께 자료 복원 기능을 중시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자료들을 최대한 이용시킴과 동시에, 자료 보존과 복원 과정에도 엄청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문화전달자로서의 마인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 여겨진다.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도서관을 방문하여 여유롭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열흘 동안 우리 팀원들 간의 동고동락한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전문 연수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수고해주신 팀장님과 팀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노옥>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외국엘 가 본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큰 기대를 하게하였다. 더구나 유럽은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과는 달리 크게 마음먹지 않고는 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해 왔기에 더욱 그러했다. 우리는 몇 가지 곡절을 겪은 끝에 이번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산업혁명의 시발국인 영국과 최초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라는 두 나라를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가슴 설레었으며 연수결과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첫 방문국인 영국에서는 일정의 촉박함으로 어떻게 지나 간 줄도 모르고 2박3일의 일정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도착하던 날 슬럼가 민박집의 열악했던 시설을 뒤로하고 런던 대학에서의 친절한 직원들의 환대와 도서관의 잘 정돈된 주제별 자료실, 고풍스러운 대학자들의 초상화와 기부장서들, 도서관을 장악하여 업무에 임하는 프로페셔널 사서들의 위상과 책임감, 옛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시민의식 등이 눈에 띄게 다가왔다. 둘째 날에 런던에서 국철을 타고 60여 km를 달려 찾아간 옥스퍼드대학 방문은 우리에게 영국여행의 백미였다.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옥스퍼드로 가는 길은 내가 생각한 영국과는 거리가 있었다. 영국은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 보다 조금 더 큰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옥스퍼드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대평원의 연속이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 밀밭, 해바라기 밭, 콩밭, 목초지, 목장, 잔디밭과 임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풍부한 수량의 수많은 강과 호수를 보면서 작은 나라지만 커다란 자연조건의 수혜를 입은 나라임을 알 수 있었고 영국 산업혁명의 밑바닥은 바로 이러한 농업에 유리한 자연 조건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도시인 옥스퍼드는 동화 속의 나라처럼 느껴졌다. 해리포터 영화를 찍은 곳이라고 했다. 나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 중세로 날아온 것 같았다. 웅장하면서도 고풍 찬란한 건물들이 그대로 깨끗이 유지되고 있는 거리와 거리의 모습에서 그야말로 이국의 정취가 물씬 풍겨 나왔다. 또한 거리를 메우고 있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 그 오래된 거리의 각 건물에 위치한 숍들에서는 기념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좋은 자연환경과 조상 잘 둔 덕에 너희 후손들도 잘 사는 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 관계자와 인터뷰한 후 지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설치된 지 70년이 넘는 지하 보존서고의 웅장한 자동 도서 이동설비와 국보급 장서가 준비한 고문헌자료실 등을 둘러볼 수 있었다. 우리는 런던에 돌아와서 자투리 시간에 British Museum에서 각국에서 수집해 놓은 유적을 둘러보았는데 나는 그들이 가져다 놓은 그리스 신전의 돌기둥과 스�핑크스 등 해외 유적의 규모에 혀를 찼다. 다음날 우리는 런던 시가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British Library를 한국인 사서의 안내로 둘러보았다. 색다른 것은 자료실을 들어갈 때 가방은 물론 외투 까지도 맡기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자료 보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공적인 약속 그리고 자유로운 열람을 위하여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의 공감대가 있어 보였다. 또한 한적을 비롯한 고문헌의 자료 복원에 대한 정성과 투자는 대단하였다. 런던을 떠나기 전날 밤 피카딜리 부근의 미리 예약 해 둔 극장에서 몇 년째 매일 공연되고 있다는 'We will rock you'라는 뮤지컬을 내용도 잘 모르는 채 보았는데 어쨌거나 신나는 춤과 익살은 우리를 즐겁게 하였다. 극장에서

귀가하는 길에 'SAMSUNG' 글씨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초대형 축구선수들의 모습으로 꽉 찬 쇼윈도우를 보았다. 삼성이 후원하는 첼시팀의 마케팅 솜이었다. 그 지역이 첼시팀의 본거지 인 듯 했다. 새삼 우리의 국력을 나타내는 상징 중의 하나가 런던의 중심가까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반가웠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장시간의 여로에서 프랑스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보았다. 그 끝없이 연속되는 평원에서 포도가 나고 밀가루가 나고 우유와 고기가 생산 되니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로서는 그들과 같은 외국의 농업을 당해 내기가 힘들 것 같았다. 영국이 버스가 발달되어 있다면 파리는 지하철이 발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하철이 무척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리의 지하철에 비하면 덜하다. 파리 지하철은 1호선부터 14호선까지 있었는데 생쥐가 돌아다니는 아주 지저분한 노선이 있는가 하면 무인 조종의 최신 첨단 노선도 있다. 어떤 노선의 운행간격을 재어 보니 정확하게 70초에 한 대 꼴로 열차가 오고 갔다. 시민들은 그야말로 '두 사람도 한 줄서기'를 했고 앞사람이 어떤 일로 시간을 많이 끌어도 묵묵히 차례를 지키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에는 내가 생각한 것 보다 흑인이 무척 많았는데 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았고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관대해 보였다. 영국은 공공요금에 비싼 반면 식품 등의 물가는 다소 저렴했고 프랑스는 공공요금에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프랑스 엔지니어와 결혼한 한국인을 가이드로 섭외하여 두었었는데 그녀와 함께 ESSEC대와 소르본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에섹대가 가볍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세대의 실용주의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이라면 소르본대는 느리지만 깊이 있는 학풍을 지원하며 프랑스의 전통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보여 졌다. 우리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을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다.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과 유람선, 노트담성당, 방돔 광장, 에펠탑, 오페라하우스,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파리의 유적들과 치밀한 도시계획으로 지어진 짜 맞춘 듯이 연결된 건물 들은 그 아름다움과 거대함으로 나를 압도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세계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들이 즐비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 어느 것이 귀하고 그렇지 않은 지를 구분할 수 없어 보였다. 거기에는 프랑스 고유의 궁중 유적과 미술품은 물론 수백 개의 이집트인의 미라가 통째로 들려와서 서 있거나 누워있었으며, 책에서 보던 이태리와 스페인의 유명한 회화, 그리스의 석조물, 동아시아의 불교 유적 등 셀 수 없이 많은 외국의 문화유산들이 수많은 방과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인들로부터 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유의 유모어 감각과 웃는 얼굴,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나이 든 노부부들의 다정한 모습과 옛 것에 대한 자부심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문화유산과 그 유적의 틈에 살아 흐르는 자연과 호흡하며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자존심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어 집을 맡기려 한국인 가이드가 사는 파리의 오래된 5층 아파트를 단체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석회석 골격과 목조 계단으로 지어진 그 집은 파리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무척 좁고 불편해 보였다. 파리는 집수리나 신축이 엄격히 통제된다고 했다.

전승 문화를 지키는 데는 많은 불편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척박한 자연환경과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었을 때 도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이번 유럽연수에의 기회 부여로 근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해 주신 대학의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연수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고 벤치마킹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김장원>

V. 수집자료

- The Facts, The University of London, The University of London is among the oldest, largest and most diverse universities in th UK, 2003.
- Looking at the Past : A Guide the Resources, Higher Education hefce funding council for england, 2003.
- Guide : Colleges and Institutes 2007-2008, University of London, Established by Royal Charter 1836,
- Appendices : Undergraduate & Postgraduate 2007, University of London, Established by Royal Charter 1836,
- Psychology,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Manuscript studies and paleography,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Printed book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Archives and Manuscript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Sociology & Anthropology,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Using Special Collections : A Practical Guide,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Theatre Studie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Periodical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Victorian Studie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Map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Music,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Politics, Senate House Library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Enquiry Services,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Accessing Electronic Resources,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Other useful London libraries,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Theses,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News and current affairs resources,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A guide to the classification scheme,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Accessing Electronic Resources, Senate House Library Information Guides, University of London Research Library Services
- Oxford University Library Services : annual report 2004-2005, Curator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March 2006
- Oxford University Library Services : Vision for 2011, Curator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January 2006
- A University Library for the 21st Century : a report to Congregation by the Curator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 Oxford University Library Statistical factsheet no.27
- Learning Center Guide, Essec University
- e-Resources, ESSEC University
- International news letter, ESSEC University
- ESSEC Links & Partnerships in Korea, ESSEC University
- A Summer Module, ESSEC University
- ESSEC Business School 소개책자, ESSEC University